

# '임실N장미축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 28~31일 장미축제 첫 개최 기념... 기부자에 담례품·피자·장미꽃 등 선물

임실군이 처음 개최하는 '2026 임실 N장미축제'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제 박 이벤트를 마련, 관광객과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페스티벌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임실N장미축제' 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임실치즈페스티벌 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진행되며, 현장 기부자들에게 세액공제와 20% 할인된 가격의 치즈 담례품에 특별 추가혜택까지 제공한다.

축제 기간중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담례품과 함께, 1만6000원 상당의 '임실치즈피자(L)' 한판과 장미꽃

선물세트를 특별 증정한다.

특히 양궁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20만원 이상 지정기부시에는 피자과 장미꽃선물, 2만원 상당 주유권까지 추가 제공, 세액공제와 담례품까지 더해 1석 5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제현장에서 10만원 기부 시에는 세액공제 10만원, 담례품 3만 6천원, 피자 1만6000원 등 총 15만 2000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만원 지정 기부 참여시에는 세액공제와 담례품, 피자, 주유권등을 포함해 약 25만2000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26 임실 N장미축제'는 임실군의 새로운 대표 봄 축제로, 약 6만5000㎡ 규모의 임실 치즈페스티벌 장미원을 중심으로 펼

쳐진다.

축제장에는 150여종, 2만2000여주의 유럽형 장미가 화려하게 만개한 장관을 이루고, 수국과 감성 조형물, 포토존이 더해져 마치 유럽정원에 들어선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29일 개막공연에는 이찬원·손태진·전유진·김다현·신유 등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해 축제분위기를 뜨겁게 달궈 예정이며, 30일에는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토즈 음악회'가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여기에 심수봉·범진·관치 등이 출연하는 라디오 공개방송까지 이어지며 축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장류박물관, '전북 박물관미술관 연합전시' 공모 선정

순창장류박물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사)전북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미술관 연합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연합전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자원을 주제로 도내 박물관·미술관이 협력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순창장류박물관은 오는 7월부터 '병오창의(태인의병)'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병오창의 2주강(1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장을 태인면 무성서원에서 최익현과 임병찬의 주도로 시작된 의병 활동을 재조명한다. 의병들은 내장사와 구안사를 거쳐 순

창 일대에서 항일 의지를 이어갔으며, 이번 전시는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전시에서는 무성서원 현판, 돈현유년, 순화어문 현판 등 의병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을 선보여 당시의 시대상과 의병들의 활약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집중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순창군은 지난 11일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민관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도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안전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 숨은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조광의 순창 부군수, 건축·소방·전기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옥상에 이르기까지 건물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 구조부 균열 및 손상 여부 △소방시설 작동 상태 및 대피 통로 확보 △전기 배



선 노후화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옥상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김중훈 부지사는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도 끝까지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신속히 재원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아카데미 열려

남원시는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일, 시 공동체지원센터(동현길 102)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의 신규 정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 급변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이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서는 사업 도입 배경 및 핵심 취지, 기업별 참여 방법 및 필수 준비사항, 인센티브 연계 방안 등이 상세히 다루었으며, 특히 성과 측정의 기준인 사회적가치지표(SVI)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입증 전략을 중점적으로 학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 성료

### 추향제 기간 생산자·소비자 교류·체험·공연 등 '호응'

남원시는 제96회 추향제 기간인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월곡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특히 단순 판매 행사를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어우러진 참여형 축제로 기획되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시장의 농특산품 판매 부스와 킥테이너 부스에서는 지역 농가와 업체가 직접 생산한 고품질의 농특산품 및 가공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며, 청소년 공연, 여성농업인 재능 한마당 등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더해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축제 기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로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은 물론,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최정민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며 상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역 발전과 지역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상철 국토교통부 과장을 제44대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 제44대 남원 명예시민 탄생

### 시, 유상철 국토교통부 과장에 명예시민증 수여

남원시는 지역 발전과 지역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상철 국토교통부 과장을 제44대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시민증은 2005년 제정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돼 남원시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유상철 과장은 국토교통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핵심 실무자로 활동하며 남원시의 지적행정 발전과 국가에 산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연속직적도 정비사업 전국 시범 지자체 선정과 국가예산 3억 원 확보를 지원해 남원시가 고정밀 연속직적도 구축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또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40억 원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비 확보를 지원해 전국 2위 규모의 사업 추진에 기여했으며, 전북 최초 구(舊)토지대장 한글화 및 디지털 구축사업 국비 지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남원시가 2023년도와 2025년도 두 차례 지적 및 국토교통업무 발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될 수 있으며, 시정 참여 기회와 함께 시민에 준하는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받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이동노동자 세무·안전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11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남원시 이동노동자 세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세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교통공단 소속 강사와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헬멧, 장갑 등 안전물품 구입비 △유류비 △운송수단 정비 및 수리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당일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야간작업 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야광조끼'를 배부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

임실군은 13일부터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작은별영화관에서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임실군이 참여하여 1,758만6,000원을 배정받아 임실군민들에게 최대 6,000원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실 작은별영화관의 기존 관람료는 1매당 7,000원인데, 본 사업을 통해 6,000원을 할인받게 되면 관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할인 혜택은 1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예매 결제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도 함께 종료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